

# 글로벌시민교육

|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

# 글로벌시민교육

|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

원저자: 유네스코

기획·번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발간사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지난 2000년 설립된 뒤 국제이해 교육 증진을 위해 교육가 연수, 교사 교류, 자료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국제이해교육은 ‘평화를 지향한 문화 건설’이라는 궁극의 목표 아래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세계화,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핵심 주제들을 다루는 유네스코의 주요 교육의제로서 그동안 세계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평화교육, 인권교육, 문화다양성교육, 국제교육 등으로도 불리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핵심 사업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을 수립하면서 ‘글로벌시민의식 함양’을 세 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한 이래,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인류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들—기후변화, 빈곤, 전염성 질병 등—의 원인과 영향이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고, 따라서 그 해결 또한 국가간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은 학습자가 인류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소통, 협력, 창의 및 실천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시민교육의 요지이며 인권과 사회정의, 다양성, 평등, 평화, 지속가능발전 등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시민교육에 관한 기념비적인 국제회의로 평가받고 있는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2013년 9월 9~10일, 대한민국 서울)와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2013년 12월 2~4일, 태국 방콕)의 주요 성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린 전문가회의에서는 전 세계의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시민교육의 정의, 개념 및 실행에 관한 기본 논의가 이루어졌고,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실천가들이 자신의 경험 및 성공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글로벌시민교육을 향후 세계 교육의제의 주요 목표로 튼튼히 세우기 위해 국제사회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GEFI 지원국(Champion Country)으로 가입하여 글로벌시민교육의 확산과 'post-2015' 교육의제 설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본부와 공동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클리어링하우스를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글로벌시민교육 증진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내 글로벌시민교육의 개념 및 실용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시민교육을 독창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

은 물론 글로벌시민교육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정우탁



## 차례

발간사 · 5	
머리말 · 9	
감사의 말 · 11	
약어 · 14	
개요 · 16	
배경 · 19	
<b>1. 글로벌시민교육의 기본 개념과 논의</b>	<b>23</b>
1.1 글로벌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 24	
1.2 글로벌시민교육의 개념을 둘러싼 갈등 · 32	
1.3 글로벌시민교육을 가능케 하는 요소 · 35	
<b>2. 글로벌시민교육의 실제</b>	<b>41</b>
2.1 교과과정을 통한 접근 · 43	
2.2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 47	
2.3 스포츠나 예술에 기초한 접근법 · 51	
2.4 공동체에 기초한 접근법 · 53	
2.5 교사 훈련 · 55	
2.6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 활동 · 57	
2.7 글로벌시민교육 모니터링과 측정 · 60	
<b>3. 앞으로의 과제</b>	<b>66</b>
참고문헌 · 70	

## 머리말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의 목표를 이루기로 한 2015년이 다가오고, ‘2015년 이후(post-2015)’ 개발 의제를 수립하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21세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바라는가에 대한 의미 있는 성찰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많은 나라에서 교육 기회 확대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교육의 질과 적합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상호 존중과 평화로운 공존을 북돋우는 가치·태도·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교육이 인지적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 지구를 위협하는 기존의 난제들과 앞으로 나타날 세계적 난제들의 해결을 도울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이 제공하는 기회들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육의 역할과 목적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2년에 출범한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글로벌시민의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학습자가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유네스코는 글로벌시민교육을 향후 8년(2014~2021년)간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이 세계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에 대응하는 주요 교육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시민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시민교육과 그것이 교육 내용과 교수법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

## 감사의 말

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시민교육에 관한 공통된 시각을 제공하고,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양한 상황 속 우수 사례와 기존의 접근법들을 소개함으로써 글로벌시민교육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안내하고, 향후 의제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요소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 전역의 교육전문가, 정책입안자, 연구자, 실천가, 청소년 대표, 시민사회 관계자, 미디어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들과의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 대화와 정보교환의 결과물이다. 또한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두 차례 열린 유네스코 회의—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2013년 9월, 서울)와 제1차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2013년 12월, 방콕)—의 성과에 폭넓게 의지하고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에 관한 첫 번째 유네스코 출판물인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갈수록 세계화되고 상호 밀접해지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새로운 추세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발 의제를 설정해야 하는 때에 나오게 되었다. 평화와 복지, 번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 유네스코 출판물이 글로벌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글로벌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에 필요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  
치엔탕(Qian Tang)



유네스코는 전 세계 다양한 파트너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작업한 이 출판물을 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외교부·교육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 2013년 9월 9~1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최한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 참가자들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바달 알 카루시(Badar Al Kharusi), 쉘 보도(Shem Bodo), 장보스코 부테라(Jean-Bosco Butera), 알리샤 카베주도(Alicia Cabezudo), 랄프 칼스텐스(Ralph Carstens), 미구엘 카르발로 다 실바(Miguel Carvalho da Silva), 군타스 카트락스(Guntars Catlaks), 차운경, 최동주, 최정순, 정경화, 정우탁, 정용철, 엄정민, 무하마드 파우르(Muhammad Faour), 난타나 가자세니(Nantana Gajasen), 한충희, 한건수, 헤리베르트 힌젠(Heribert Hinzen), 홍진욱, 메이사 잘붓(Maysa Jalbout), 장태상, 정선미, 조대훈, 지선미, 강영순, 로미나 지젤 카스만(Romina Giselle Kasman), 김혜민, 김효정, 김진희, 김종훈, 카비루 킨안쥐(Kabiru Kinyanjui), 디나 키완(Dina Kiwan), 인자이루 쿨룬두(Injairu Kulundu), 마크 레비(Mark Levy), 마영삼, 박순용, 박홍순, 박성춘, 미카엘라 포탄코코바(Michaela Potancokova), 페르난도 M. 라이머스(Fernando M. Reimers), 바바라 로메로 로드리게즈(Bárbara Romero Rodriguez), 류혜숙, 크리스티나 사무디오(Kristina Samudio), 서민희, 신동익, 아메이라 시칸드(Ameira Sikand), 클라우스 스탈(Klaus Starl), 성삼제, 에시 수델랜드애디(Esi Sutherland-Addy), 찬바오 탄(Chuanbao Tan), 토 스위힌(Toh Swee-Hin) 그리고 카를로스 알베르토 토레스(Carlos Alberto Torres)가 바로 그들이다.

2013년 12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차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의 발표자와 토론자, 특히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분들 — 나오키 아라카와(Naoko Arakawa), 체르노 바(Chernor Bah), 쉘 보도, 배리 버시울(Barry Burciul), 알리샤 카베주도, 매튜 캔텔레(Matthew Cantele), 군타스 카트락스, 정우탁, 린다 코너(Linda Connor), 엄정민, 루이스 카를로스 구에데스(Luiz Carlos Guedes), 살와 함로우니(Salwa Hamrouni), 캐롤리나 이바라(Carolina Ibarra), 토발드 제이콥슨(Torvald Jacobson), 인자이루 쿨문두, 릴리 라팔레이넨(Rilli Lappalainen), 라이언 맥클린(Ryan Maclean), 살바토레 니그로(Salvatore Nigro), 록 오도노휴(Rob O'Donoghue), 페르난도 M. 라이머스, 카티케이 V. 사랍하이(Kartikaya V. Sarabhai), 케이트 앤더슨 시몬스(Kate Anderson Simons), 토 스위헌, 발레리 테일러(Valerie Taylor) 및 카를로스 알베르토 토레스 — 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포럼의 모든 보고자, 특히 전체 토론과 주제별 회의들을 요약한 보고서를 쓴 멜리오사 브라켄(Meliosa Bracken)과 청소년 분과 및 프로그램의 여러 면에 대해 보고한 디피카 준(Deepika Joon)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다음 외부 검토자 체르노 바, 멜리오사 브라켄, 마크 에반스(Mark Evans), 스테파니 녹스 쿠본(Stephanie Knox Cubbon), 디나 키완, 윈온리(Wing On Lee), 유네스코 문화국과 세계유산센터의 린 파체트(Lynne Patchett), 베스나 부이치치-루가시(Vesna Vujicic-Lugassy), 니나 미로사빅(Nina Mirosavic)의 깊이 있고 소중한 의견에도 특별한 감사를 보낸다.

또한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2013년 9월 9~10일, 대한민국 서울)를 위해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해준 대한민국 외교부와 교육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 감사를 드린다. 제1차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2013년 12월 2~4일, 태국 방콕)에 재정을 지원해준 셰이카 모자(Sheikha Mozah) 카타르 왕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MGIEP, Mahatma Gandhi Institute of Educ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와 친절한 도움을 베풀어 준 태국 정부에도 감사 드린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내의 협력, 특히 유네스코 본부의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유네스코 전문기관인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 저스틴 새스(Justine Sass)가 책임 편집자로 참여했으며, 최수향, 크리스 캐슬(Chris Castle), 알렉산더 라이히트(Alexander Leicht), 준 모로하시(Jun Morohashi), 리디아 루프레히트(Lydia Ruprecht), 티오파니아 차바치아(Theophania Chavatzia) 등의 역할이 컸다.

마지막으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가치를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해 온 모든 연구기관, 정부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그리고 함께한 청소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약어

<b>AIDS</b>	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b>APCEIU</b>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ASEAN</b>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Organizations
<b>CBO</b>	지역기반조직 Community-Based Organization
<b>CSE</b>	종합적인 성교육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b>DESD</b>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FA</b>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
<b>EIU</b>	국제이해교육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ESD</b>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GBV</b>	성폭력 Gender-Based Violence
<b>GCED</b>	글로벌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GEFI</b>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 UN Secretary-General's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b>HIV</b>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b>HRE</b>	인권교육 Human Rights Education
<b>ICT</b>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LMTF</b>	학습지표연구위원회 Learning Metrics Task Force
<b>LTLT</b>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Live Together
<b>MDG</b>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MGIEP</b>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Mahatma Gandhi Institute of Educat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MoE</b>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b>MoH</b>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b>OAS</b>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b>OECD</b>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OVEP</b>	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 Olympic Values Education Programme
<b>PISA</b>	국제학업성취도평가 프로그램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
<b>SADC</b>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b>STEP</b>	고용 및 생산성 기술 Skills Toward Employment and Productivity (World Bank)
<b>TVET</b>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UN</b>	국제연합 United Nations
<b>UNESCO</b>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b>UNFPA</b>	유엔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b>UNICEF</b>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b>WHV</b>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봉사단 UNESCO World Heritage Volunteers
<b>YMP</b>	영마스터스 프로그램 Young Masters Programme



## 개요

글로벌시민교육(GCED)은 교육이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계발할 수 있는지를 요약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은 세계적 문제들을 사회·정치·문화·경제 및 환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교육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뜻한다. 또한 교육의 역할이 지식과 인지 기술 발달에서 더 나아가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가치관과 소프트 스킬, 그리고 태도를 기르는 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은 인권교육·평화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주제에서 이미 사용된 개념과 방법론 및 이론을 취하면서 다면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야와 주제 간의 중복되는 의제, 즉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의제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은 세 가지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시민의식 함양' 수단으로 교육을 지목했다. 2013년 유네스코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시민교육과 관련한 주목할 만한 회의를 두 차례 조직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닌 공동의 전문 지식과 경험, 지혜를 통해 글로벌시민교육의 특성을 정의하고, 최근의 새로운 견해와 진행 중인 다른 활동과 조화를 이루는 향후 실행 방안을 계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이 학습자가 역동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21세기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양한 배경과 지역 그리고 공동체에서 여러 방법으로 적용되면서, 글로벌시민교육은 학습자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계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다면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문화·종교·인종 및 그 밖의 차이점을 초월하는 '집단 정체성'의 잠재력에 기초한 태도
- 전 세계적 문제들과 정의·평등·존엄·존중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 문제의 서로 다른 차원과 양상 및 측면을 인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포함해 비판적이고 체계적이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인지 기술
- 공감이나 갈등 해결 같은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출신, 문화,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소질을 포함하는 비인지 기술
- 전 세계적 문제들의 세계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공동선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전인적 접근은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한 접근,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통한 개입, 관습적 및 비관습적 참여를 요구한다. 정규 교육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은 기존 교과목(시민교육, 사회, 환경, 지리 또는 문화)의 주요 부분, 또는 독립 교과목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전자와 같은 통합적 모델이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과 소셜미디어의 활용, 스포츠·미술·음악의 활용,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 활동 등은 덜 전통적이지만 효과적인 글로벌시민교육의 접근법이다. 이 보고서에는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전망과 새로운 전망이 모두 담겨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을 촉진하고 실행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탐구한다. 보편적 가치에 개방적인 환경, 변혁적 교수법과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이 그러한 조건들이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시민의식과 글로벌시민교육의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지만, 모두 어떻게 하면 개별성(개인의 권리, 자기계발 등)을 존중하는 동시에 보편성(공동 및 집단의 정체성, 관심사, 참여, 의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동시에, 글로벌시민교육의 이론적 요소에 대한 도전들이 그것의 실천 기반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 보고서에 기록된 과정들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연대를 구축하며, 글로벌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근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능 조건과 실천 방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리는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고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잘 된 사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 배경

교육 담론과 실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정치·문화·경제 및 환경 분야의 세계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교육과 학습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교육의 역할은 지식과 인지 기술의 발달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가치와 소프트 스킬 및 태도를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육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사회 변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갈수록 상호 연결과 의존도가 커져가는 세상에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발전 및 평화와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준비시키는 변혁적인 교수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는 물리적 충돌과 빈곤,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불균형한 인구분포 및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포함되는데, 모두 육·해·공의 경계를 초월해 국가들 간의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계화 시대에 교육은 개인이 세계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노력하는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행동을 어릴 때부터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상호 연결성이 증대되면서 상호 협력과 공조, 공동학습과 집단 대응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평화와 인권, 평등, 다양성에 대한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교육의 역할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피지에서 프랑스, 바하마에서 보츠와나, 에콰도르에서 에스토니아에 이르기까지, 이들 개념은 교육의 접근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은 모든 노력과 열망을 하

나의 모델 안에 응축함으로써 의제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이 노력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 지지하는가를 강조하고자 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역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을 공표하며 “사람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돕는”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12년에 출범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세 가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글로벌시민의식 함양’을 꼽고 있다.<sup>1</sup>

유엔 교육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향후 8년간 교육 사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시민 육성을 세부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을 뒷받침하고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우수 실천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유네스코와 파트너들은 2013년에 두 차례의 획기적인 행사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다.

-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 : 2013년 9월 9~1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유네스코, 대한민국 외교부와 교육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공동 개최.
-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포럼 : 2013년 12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유네스코 본부의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마하트마 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공동 개최.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협의 과정의 산물이자 글로벌시민교육의 근거에 관한 광범위한 기록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교육 접근법으로서의 글로벌시민교육과 교육 콘텐츠·교수법·접근법에 미치는 글로벌시민교육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글로벌시민교육과 관련된 전 세계의 혁신적 접근법과 우수 실천사례를 소개한다.
- 글로벌시민교육을 증진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교훈과 방안을 공유한다.

이 보고서는 학습자가 21세기에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모든 곳의 교육정책 입안자, 실천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교육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 이상의 것이다. 시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교육은 사람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돕는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떠맡아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012년 9월 26일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의 출범을 선언하며

<sup>1</sup>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은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다. 모든 어린이에게 취학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며, 글로벌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이다. <http://www.globaleducationfirst.org/about.html> 참조.



## 1. 글로벌시민교육의 기본 개념과 논의



### 글로벌시민의식

글로벌시민의식은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개념으로, 글로벌 시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sup>2</sup> 어떤 사람들은 글로벌시민의식을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식’<sup>3</sup> 또는 ‘민족국가를 초월한 시민의식’<sup>4</sup>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sup>5</sup>이란 용어가 글로벌 시민의식보다 더 폭넓고 포괄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여전히 ‘지구 시민의식(planetary citizenship)’<sup>6</sup>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민의식’은 다면적 관점의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왔다. 이는 국제무역과 이주, 커뮤니케이션 등이 활발해지면서 경제·문화·사회 분야의 국가 간 상호 의존 및 연결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세계의 안녕이 국가와 지역의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의 안녕에 대한 국경

2 유네스코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의 결과물인 『글로벌시민교육 : 새로운 교육의 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An Emerging Perspective』, UNESCO, 2013 참조.

3 U. Vogel and M. Moran 역음, 『시민의식의 새 영역 The Frontiers of Citizenship』, Basingstoke, Macmillan, 1991, pp.155~165에 실린 A. Weale의 ‘국경을 넘어선 시민의식 Citizenship Beyond Borders’ 참조.

4 N. O’Sullivan 역음, 『전환기의 정치 이론 Political Theory in Transition』 London, Routledge, 2000에 실린 R. Bellamy의 「민족국가를 초월한 시민의식 : 유럽의 사례 Citizenship Beyond the Nation State: The case of Europe」 참조.

5 M. E. Keck and K. Sikkink, 『국경을 넘어선 실천주의자 Activists Beyond Borde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D. Coulter, G. Fenstermacher and J. R. Wiens 역음, 『왜 우리는 교육하는가? 대화의 새로운 시작 Why Do We Educate? Renewing the Conversation』,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Yearbook for 2008, 2008, Vol. 107, No.1.에 실린 K. A. Appiah의 「글로벌시민의식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참조.

6 H. Henderson and D. Ikea, 『지구 시민의식 : 당신의 가치관과 믿음과 행동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Planetary Citizenship: Your values, beliefs and actions can shape a sustainable world』, Santa Monica CA, Middleway Press, 2004 참조.

을 넘어선 우리의 관심과도 연관되어 있다.<sup>7</sup>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시민의식이 법적 지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다. 글로벌시민의식은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와 인류 전체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과 국가를 세계와 연결하는 ‘세계를 향한 열린 시각’을 장려한다.<sup>8</sup> 또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여 다양성과 다원성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을 그때 그곳의 타인 및 환경과 연결시키고 이해하며 행동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의미에서 개인의 삶은 세계를 지역과, 또 지역을 세계와 연결하는 하루하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시민은 여권이나 국가 문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글로벌 시민은 국가가 아닌 인류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 체르노 바(Chernor Bah), 글로벌교육우선구상 청소년지원단(YAG) 의장

“글로벌시민의식의 특징은 세계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해와 공동선에 대한 헌신이다.”

– 카를로스 토레스(Carlos A. Torres), UCLA 교육대학원 파울로 프레이리 연구소장

### 글로벌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은 “세계화 속에서 시민의식의 형성과 관련된 교육의 필수적 기능을 강조한다. 글로벌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지식과 기술, 가치관이 지역과

7 W. O. Lee and J. Fouts, 『사회적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Social Citizenship』,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5, 5장; 『아시아태평양 교육 저널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Vol. 32, No. 4에 실린 W. O. Lee, ‘미래 지향적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 : 21세기 역량 교육에 미치는 영향 Education for future-oriented citizenship: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twenty-first century competencies’ 참조.

8 『시민의식과 교사 교육에 관한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itizenship and Teacher Education』, 2005, Vol. 1, No. 2, pp.76~91에 실린 H. Marshall, ‘시민의식 교육의 글로벌한 시각을 발전시킨다 : 영국의 세계교육 NGO 활동가들의 관점에 대한 탐구 Developing the Global Gaze in Citizenship Education: Exploring the perspectives of global education NGO workers in England’ 참조.

세계 차원에서 서로 연결된 다방면의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는 교육의 시민적·사회적·정치적 사회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호 연결 및 의존이 빠르게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sup>9</sup>

글로벌시민교육은 정규·비정규 교육을 통해 행동과 파트너십, 대화와 협력을 장려한다. 또한 인권교육·평화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포함해 관련 분야에서 개념과 방법론 및 이론을 사용한 다면적 접근법을 응용하며, 호기심·연대감·공동책임 정신을 북돋아 준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문화 교육이나 보건 교육 같은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목표와 접근법, 학습 결과가 많이 중복되기도 하고 서로를 강화하기도 한다.<sup>10</sup>

기본 패러다임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의 구성요소들은 기존 교육에 편입될 수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을 독립된 혹은 중복되는 학문이 아니라 범학문적인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생산적일 것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의 중요한 출발점은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이다. 그것은 줄기가 많은 강과 같아서, 우리는 이 강에서 서로 쉬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

— 토 스위힌(Toh Swee-Hin), 유엔평화대학(코스타리카)교수

<sup>9</sup> 『유네스코 교육 연구 및 전망 조사보고서 UNESCO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ERF) Working Papers Series 7』, Paris, UNESCO에 실린 S. Tawil, ‘글로벌 시민을 위한 교육 :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framework for discussion,’ 2013 참조.

<sup>10</sup>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을 위하여 유네스코에 제출된 M. Bracken의 「보고서 1-전체 토의 Paper 1- Plenary Debates」(2014) 참조.

## 글로벌시민교육의 목표와 역량 및 실행

글로벌시민교육은 학습자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은 교육의 모든 주제 및 분야의 개념과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sup>11</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와 교육자는 지역 차원의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고 세계 차원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낸다. 크고 작은 문제들과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세상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습자가 실생활 속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게 한다.
- 학습자가 주류 담론의 가설과 세계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체제에서 소외된 개인 또는 집단을 고려하도록 돕는다.
- 바람직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 학습환경 밖에 있는 이들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공동체나 더 큰 사회에 참여시킨다.

<sup>11</sup> Global Education Week Network in coordination with the Council of Education, 「글로벌 교육 지침 : 교육자와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글로벌 교육의 개념과 방법론 Global Education Guidelines: Concepts and methodologies on global education for educators and policymakers」, Lisbon,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12, p.22 참조. S. Tawil, 2013도 참조.

글로벌시민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 토대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전인적 접근은 정규 교육 및 비정규 교육을 통한 접근, 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통한 개입, 관습적 및 비관습적인 참여 경로를 요구한다.

학습자의 관심에 기초한 대화형·탐구기반형·협동형·참여형 학습 등 많은 교육학적 접근과 기법들이 글로벌시민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되고 적용되어 왔다. 정규 교육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은 기존 교과목(시민교육, 사회, 환경, 지리 또는 문화)의 주요 부분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독립 교과목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비공식·비정규 학습은 글로벌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정규 교육 시스템 밖에 있거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통합적 접근은 교과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끝난 뒤, 글로벌시민교육은 국가 건설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길러 줄 수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은 갈등 인지적 교육의 원리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분쟁 중 또는 분쟁 뒤의 상황에서 실시할 수 있다.<sup>12</sup> 교과과정과 학습자료를 활용해 편견과 고정관념, 배타주의, 사회적 소외에 맞서고, 안전과 복지를 촉진하는 행동을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위기상황 교육을 위한 국제기구 네트워크(INEE,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의 ‘갈등 인지적 교육방안(Conflict-Sensitive Education Pack)’이 강조하고 있는 여섯 가지 원칙 중 하나가 “평등과 시민으로서의 아동의 전인적 계발 촉진”이다.<sup>13</sup> 여기에는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12 위기상황 교육을 위한 국제기구 네트워크(INEE), 「갈등 인지적 교육에 관한 INEE 지침 *INEE Guidance Note on Conflict-Sensitive Education*」, New York, INEE, c/o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2013 참조.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배분하고, 변혁적 교수법과 교과과정 및 자료들을 통해 평등 교육과 학습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기르도록 한다.

덜 전통적이지만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글로벌시민교육 접근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학습자는 어디서든 배우고, 교육자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보통신기술과 소셜미디어 활용, ② 다양한 민족, 문화, 사회경제 수준, 정체성을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게 경쟁적이지만 공정하고 조화로운 장을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③ 자기표현, 다른 문화와의 대화, 공동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예술과 음악, ④ 이해심, 사회적 자본, 문화 간 대화와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청소년 네트워크 등이다. 다양한 접근법은 다음 장 ‘글로벌시민교육의 실제’에서 다룰 것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은 다양한 형태를 택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 요소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학습자들의 다음과 같은 역량을 기르는 것이 포함된다.

- 다면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문화·종교·인종 및 그 밖의 차이점을 초월하는 ‘집단 정체성’의 잠재력에 기초한 태도(같은 인류라는 소속감, 다양성 존중 등)
- 세계적 문제들과 정의·평등·존엄·존중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세계화 과정, 상호 의존 및 연결, 국가가 적절히 또는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세계적 문제들, 미래의 주요 개념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 등)
- 문제의 서로 다른 차원과 양상 및 측면을 인지하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포함해 비판적이고 체계적이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인지 기술(다양한 관점의 접근법을 토대로 한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 등)

13 위기상황 교육을 위한 국제기구 네트워크(INEE), 「갈등 민감성을 교육정책에 통합하고, 갈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고려해야 할 INEE 원칙 *INEE Guiding Principles on Integrating Conflict Sensitivity in Education Policy and Programming in Conflict-Affected and Fragile Contexts*」 참조. <http://www.ineesite.org/en/education-fragility/conflict-sensitive-education>.

- 공감이나 갈등 해결 같은 사회적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출신, 문화,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세와 같은 비인지 기술(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공감과 연대의식 등)
- 세계적 문제들의 세계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력(사명감, 의사결정 능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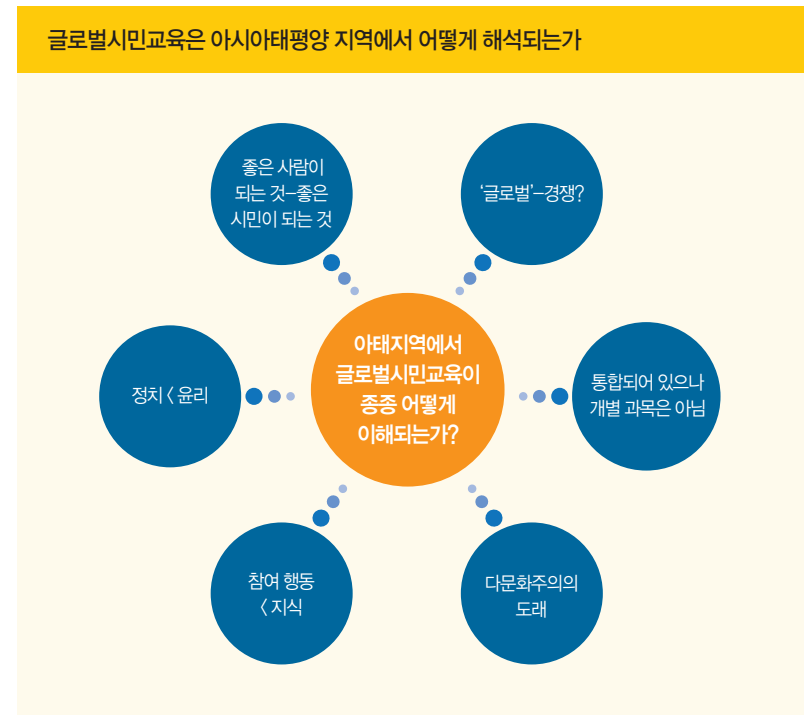
### 다양한 해석

글로벌시민교육에는 핵심 파라미터가 있지만 접근법과 해석, 초점이 종종 다르며,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황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은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그랬듯이 대부분 평화 교육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sup>14</sup>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최근 중동 국가들처럼 정권의 이념적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는 시민교육이 글로벌시민교육에 내재된 민주적 참여 원칙과 그 밖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출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역통합과 지역협력 메커니즘,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구축 또한 시민과 시민의식, 민주주의와 좋은 통치, 평화와 관용을 특히 강조해 왔는데, 이것들 모두 글로벌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시민의식 모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글로벌'의 의미가 국제적이라는 것과 반드시 상통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학교 간, 교사 간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글로벌시민교육을 확대시키고 있다. 동시에 단순한 교류, 즉 물리적으로 한

<sup>14</sup> J. B. Butera, '아프리카의 글로벌시민교육 추세 Trend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Africa', 2013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 참조.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글로벌한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에 마음을 열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은 분리된 과목이 결코 아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 가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그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또한 행동하고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법에 대해서<sup>15</sup>—배우는지에 초점을 맞춘 학습과정으로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역할을 하도록 복돋아 준다.



자료 : U. Chung,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시민교육 Global Citizen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APCEIU, 2013년 9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sup>15</sup>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A. Cabezudo가 발표한 내용.



현재 글로벌시민교육은 개념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타협할 수 없지만 간과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글로벌시민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인식·가치·신념·세계관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특성은 약점보다는 강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갈등 양상은 다양하지만, 모두 어떻게 하면 개별성(개인의 권리, 자기개발 등)을 존중하는 동시에 보편성(공동 및 집단 정체성, 관심사, 참여, 의무 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하고 있다.

### 글로벌 연대 vs 글로벌 경쟁

앞서 말한 갈등 중 하나는 글로벌시민교육이 글로벌 공동체와 개별 학습자가운데 어느 쪽의 성과를 지향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전자가 글로벌시민교육이 세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면, 후자는 개별 학습자가 '21세기 기술'을 갖추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연대와 개인의 경쟁력을 어떻게 동시에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부분적으로 연결된다. 어떤 사람들은 연대와 경쟁은 근본적으로 대립하며, 교육 프로그램들은 전통적으로 공동의 성과를 위한 사회적 자본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취업시장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글로벌시민교육이 경쟁과 연대 모두를 글로벌시민의식의 필수 요소로 교육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관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글로벌시민의식의 특성 중 하나로 장려된다면, 혁신과 창의성을 자극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상호 연결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는 경쟁이 학습자가 훌륭하게 성장하고 세상을 유지·번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믿는 새로운 관점이다.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한 발표자는 유럽연합(EU) 모델에 내재된 원칙들이 글로벌시민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잘 보여 준다고 말했다. 살바토레 니그로(Salvatore Nigro) 직업교육재단(EFE, Education for Employment)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활력을 주는 경쟁과 힘을 키워 주는 협력 그리고 통합하는 연대, 이 세 가지 가치를 받아들여 개인 차원에서 융합한다면, 이것이 바로 글로벌시민교육이다.”

#### 경쟁과 연대라는 복합적 의제가 공존하는 혁신적 사례

직업교육재단(EFE)의 임무는 취업과 창업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훈련을 제공하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주는 것이다. EFE는 개인적 차원에서 취업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와 글로벌시민의식의 가치도 심어 준다. 관용·공감·존중·연대와 같은 비인지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졸업생들이 멘토링과 공동체 봉사 및 다른 형태의 시민 참여 활동을 통해 '되돌려 주는 것'을 권장한다.<sup>16</sup>

더 자세한 정보는 [www.efe.org](http://www.efe.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지역·글로벌 정체성과 이익의 조화

정체성이 민감한 문제이고 국가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의 경우, 세계적 차원의 시민의식을 장려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국

<sup>16</sup> S. Nigro, '시민교육을 위한 고용 *Employment for civic education*'.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

가 시민의식 정체성이 갈등을 겪거나 위협받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우려는 흔히 국가 시민의식이 있어야만 글로벌시민의식도 생길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연구와 대화는 지역 및 글로벌 정체성과 이익의 조화를 도울 수 있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탈중심화(de-centring)'<sup>17</sup>라는 개념이 있는데, 학습자의 관심을 그들의 지역 현실 너머의 다른 현실 및 가능성과 연결하여 점차 인식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요컨대 지역과 세계를 단절되지 않은 연속체로 보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지역·국가 및 글로벌 정체성을 동시에 가르치며, 다면적 정체성을 인정한다. 또한 지역 문제와 세계 문제를 연결시켜 사고하고, 시공간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통점을 찾아내며, 글로벌 공동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이해력을 갖추도록 한다.<sup>18</sup>

### 현 상황에 도전하는 교육의 역할

변화 촉진제로서의 글로벌시민교육은 학습자가 복잡한 세계적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갈등 해결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능동적·참여적 학습법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는 계층적 교육 모델과 학습환경을 갖고 있는 정규 교육 시스템에는 하나의 도전이 될 수 있다.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의 전체 토론에서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발레리 테일러는 학교와 교실이 많은 경우 “몹시 비민주적이며, 교사들은 종종 자신들의 선입견을 깨닫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행동이나 신념을 영구화한다”고 말했다.

17 UNESCO, 『글로벌시민교육 : 새로운 교육의제』, 2013.

18 『시민의식과 교사 교육에 관한 국제 저널』, 2005, Vol. 1, No. 2, pp.76~91에 실린 H. Marshall의 「시민의식 교육의 글로벌한 시각을 발전시킨다 : 영국의 세계교육 NGO 활동가들의 관점에 대한 탐구」 참조.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시민들이 지역이나 국가 이익과 상충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될 경우, 지역·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 상황에 도전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의 역할이나 행동이 국가의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우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 요소들에는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글로벌시민교육이 현상 유지에 저항하고 대안적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측면이 문화·지역·국가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고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글로벌시민교육을 가능케 하는 요소

글로벌시민교육을 장려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최근 제시되고 있다.

### 보편적 가치에 개방적인 환경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개방적인 정치·사회·문화·종교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몇몇 나라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정책 문서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은 교육기관들이 “인류에 대한 사랑을 북돋우고 인권을 존중하며……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고,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강화하며, 도덕적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sup>19</sup> 스리랑카의 국가 교육 목표에도 “사회정의의 힘……지속가능한 생활방식……깊고 변하지 않는 서로에 대한 관심 등의 확립”이 포함되어 있다.<sup>20</sup>

교육정책은 이러한 개념과 관심이 대세가 될 수 있는 분명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방성이 결여된 환경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지지와 공동체를 결집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변혁적 교수법의 실천

글로벌시민교육은 실생활 문제들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학습을 장려한다. 나아가 참여 전략과 방법을 통해 지역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 세계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sup>21</sup>

변혁적 교수법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학습환경과 학습과정의 한 부분인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의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교실 안팎에서 교육의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다.

변혁적 학습을 위한 교수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또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차원의 습관적 행동을 재교육하는 과정인 동시에 공동체 차원에서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일 수 있다. 변혁적 교수법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화를 일으키는 교육과 사회의 혁신을 이끈다.<sup>22</sup>

19 필리핀 헌법 14조 3항 2호도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북돋우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을 넓히며, 직업과 관련된 효율을 증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밖에도 ‘기초교육관리법’(공화국 법령 2001-9155)과 2013년의 ‘기초교육진흥법’(공화국법령 10533)이 제정되어 있는데, 후자는 “모든 기초교육 수료자는 건전한 교육 원칙에 기초하여 우수함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글로벌 공동체와 유익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능력을 갖춘 자립적인 개인이 된다”고 선언한다.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A. Salmon이 발표한 ‘글로벌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필리핀의 경우 *Learning to Live Together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hilippine case*’에서 인용.

20 G. C. Chang, ‘글로벌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Live Together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발표.

21 유럽의회, 「글로벌교육 지침 : 교육자와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글로벌 교육의 개념과 방법론, Global Education Week Network in coordination with the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12년 개정.

영마스터스 프로그램(YMP, Young Masters Programme)의 토발드 제이콥슨 소장은 “쉽게 변하지 않는 교육기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향식 접근과 하향식 접근 모두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로 인한 효과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모든 교육 콘텐츠 영역에 적용된다.

교육 당국과 교장을 포함한 고위 관리자는 교육자들이 아동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doer)’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게 하는 사람(enabler)’ 또는 ‘도우주는 사람(facilitator)’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하면서 과정 중심의 학습을 이끌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변혁적인 행동과 신념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추가 훈련과 함께, 교육자들 자신의 선입견과 관습에 대한 자기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참여적이고 변혁적인 교수법을 위한 현직 및 예비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수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 학습자 중심이다.
- 전인적이며, 지역 문제와 공동의 관심사,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서로 대화하고 존중하는 학습환경을 장려한다.
-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규범, 국가 정책 및 국제 체제를 인식한다.
-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북돋우고 동기를 부여하며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 위기극복 능력과 ‘행동 역량’을 개발한다.

22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R. O’Donoghue가 발표한 내용.

아래 도표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자료 :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A. Cabezudo가 발표한 '글로벌시민교육의 원칙 소개 Introduc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inciples.'

“글로벌시민교육은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 특히 교사 연수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이다.”

-알리사 카베주도(Alicia Cabezudo), 국제평화사무소(스위스 제네바) 부대표

“교육의 질은 곧 교사의 자질이다.”

-군타스 카트락스(Guntars Catlaks), 국제교육연맹 연구팀 선임 코디네이터

###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지원

청소년은 글로벌시민의식을 밑받침하는 가치들을 증진하고 이러한 의제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원동력이다. 청소년은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육가·활동가·지도자로서 인식되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개입과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명목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현재 행동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학습자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 초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글로벌시민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촉진자·수요창출자·교육자·훈련자가 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설계·실행·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은 글로벌시민교육을 증진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다.

브라질 루트셈프론테이라스(Lute Sem Fronteiras)의 청소년 지도자인 루이스 카를로스 구에데스는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는 데는 의지와 헌신과 협력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청소년이 그들의 글로벌시민교육 참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 활동과 관련된 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 활동의 예 : 변화의 동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액티베이트(Activate!)

액티베이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역에서 공익을 위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젊은 리더들의 네트워크이다. 기술과 자존감, 독창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연결함으로써 어려운 과제들에 대응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

액티베이트는 20~30세 청소년을 위한 3년 과정의 프로그램이며 참가자들은 ‘액티베이터(activator)’, 동원자, 혁신자, 연결자, 선도자, 변화 주도자 등으로 인식된다.

첫 번째 해에는 교실 출석이 필요한 학습과정으로 자아발견, 집단적 자기성찰, 리더십, 프로젝트 운영, 사회·정치적 탐구 등을 장려한다. 이 기간의 프로그램은 모든 유형, 모든 단계의 참가자들이 이들간의 모임을 가짐으로써 마무리된다.



두 번째 해에는 액티베이터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들이 지닌 자원을 개발하며, 그들이 서로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 해에는 세미나·워크숍과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액티베이터들의 공공 혁신 리더십을 강화한다.

액티베이트 활동가인 인자이루 쿨룬두는 이렇게 설명한다. "액티베이트의 목표는 단편적인 행사를 넘어선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사는 많았으니까요! 우리는 발전과 변화, 그리고 개인과 조직, 사회를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추진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지 '서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바라보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더 자세한 정보는 [www.activateleadership.co.za](http://www.activateleadership.co.z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료 : 인자이루 쿨룬두(Injairu Kulundu),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의 개인 발표문.



## 2. 글로벌시민교육의 실제

평생학습의 관점은 모든 형태의 글로벌시민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글로벌시민교육은 공식·비공식 접근, 교과·비교과 개입, 관습적·비관습적 참여 경로를 통해 모든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글로벌시민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과 교수 기법들은 그동안 많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논의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포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글로벌시민교육의 실천을 제대로 전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글로벌시민교육 교수·학습의 실제

글로벌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은 실천을 장려한다.

-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며 활발히 교류하는 교실과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학년 규범에 대한 공동의 이해, 학생들의 의견 자리 배치, 벽면이나 시각적 공간 활용, 글로벌시민의식 형성 등).
- 학습목표에 맞는, 학습자 중심적이고 문화 감응적이며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 접근법을 사용한다(독립적이면서 협동적인 학습 구조, 깊이 있는 대화, 미디어 이해력 등).
- 실질적인 수행 과제를 포함시킨다(아동의 권리에 관한 전시를 고안, 평화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 학생신문 제작 등).
- 학생들이 세계 속 자신에 대한 '큰 그림'을 지역 상황과 연결시켜 이해하도록 돕는 세계 지향의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다양한 자료와 미디어, 상대적이고 다양한 관점 등).
- 학습목표에 맞는 평가 전략과 학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도법을 활용한다(성찰과 자기평가, 포레 피드백, 교사 평가, 신문·잡지, 이용가능한 자원의 명세서 등).
- 학생들이 교실과 학교, 지역 공동체에서 세계에 이르는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공동체 참여, 국제교류, 가상사회 등).
- 롤모델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중요시한다(최신 동향 파악, 공동체 참여, 환경 및 평등 규범 실천 등).<sup>23</sup>

글로벌시민의식을 위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단독 교과나 교과과정 자체보다도 넓다. 이상적으로는 글로벌시민교육이 학습 환경 기조의 일부가 되어 고위 관리자들의 결정과 교사들의 실천, 교육기관과 공동체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몇몇 나라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을 학습 영역 전반에 걸쳐 하나의 접근법으로 받아들여 관련 교과과정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개발된 옥스팜(Oxfam)의 '글로벌시민의식 커리큘럼'은 유아기(5세 미만)부터 고등학교(16~19세)까지 단계별 학습을 통해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Learn-Think-Act)' 접근법을 장려한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과정은 '전 학교적(whole school)' 접근법으로 능동적 글로벌시민의식을 권장한다. 또한 교사 지도서를 통해 참여 학습을 장려하고 학습평가 도구를 제공한다.<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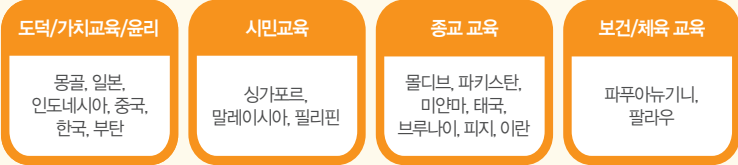
보다 일반적으로는 글로벌시민교육이 기존 교과목(시민교육, 사회교육, 사회/환경교육, 세계문화, 세계지리)의 주요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이 교육당국과 교육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다양한 교육 환경에 맞춰 조정된 교육과정에 반영되기도 했다.<sup>25</sup>

23 M. Evans, L. Ingram, A. MacDonald and N. Weber, '캐나다 시민교육의 글로벌 정도: 이론과 실천 및 상황의 복잡한 상호작용 Mapping the global dimens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Canada: The complex interplay of theory, practice, and context', *Citizenship, Teaching, and Learning*, Vol. 5, No. 2, 2009, pp.16~34.

24 관련 자료와 교훈에 대해서는 <http://www.oxfam.org.uk/education/global-citizenship> 참조.

25 M. Evans, L. Ingram, A. MacDonald and N. Weber, '캐나다 시민교육의 글로벌 정도: 이론과 실천 및 상황의 복잡한 상호작용', Vol. 5, No. 2, 2009, pp.16~34.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시민교육 관련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교과



자료: U. Chung,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시민교육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APCEIU, 2013년 9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에서 발표.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발표된 매니토바 주를 예로 들면, 12학년 사회교과 선택과목으로 '세계적인 문제들과 시민의식, 지속가능성'이 교사, 대학교수 및 교과과정 개발 컨설턴트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sup>26</sup> 이 과목은 다음 측면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 현재의 지속가능성 문제들에 대해 토의한다.
- 글로벌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탐구학습을 주요 교수법으로 채택한다.
-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독려한다.
- 학생의 선택과 의견에 우선권을 준다.
- 계획적 행동을 통해 학생들의 리더십을 북돋아준다.

학습자들은 현재의 사회·정치·환경·경제 문제에 관한 그들의 관심에 맞는, 공동체를 토대로 한 실행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유네스코의 네 기둥, 즉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

26 L. Connor, '사회과목 탐구-의도적 지속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자기효능감의 밑바탕 Inquiry into Social Studies - Supporting self-efficacy leading to planned sustainable action.' 2013년 12월에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발표. 평가 지침과 참고자료 등은 [http://www.edu.gov.mb.ca/k12/cur/socstud/global\\_issues/index.html](http://www.edu.gov.mb.ca/k12/cur/socstud/global_issues/index.html) 참조.

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강조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전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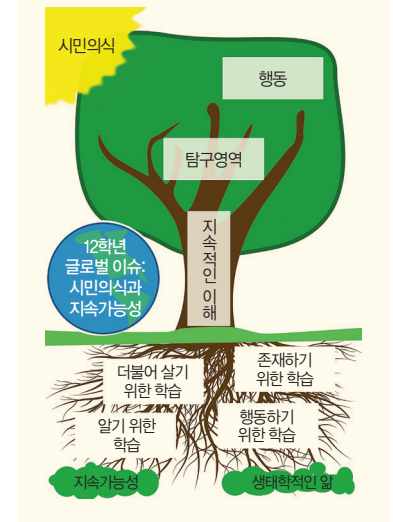
글로벌시민교육 콘텐츠와 역량은 여러 나라에서 시민교육·환경·지리·문화 등과 같은 기존 교과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교육과정 지침은 청소년들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관

련 과목들(국제이해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인권교육·다문화교육·민주주의의 교육 등)이 현재 선택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글로벌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들(지속가능성·평화·인권·의무·세계적 유대감·다양성 속의 상호 존중 등)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한다. 또한 학교는 필수과목·선택과목과 교과서를 선택하고, 시간표와 수업시간을 안배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업무량, 시험 중심의 교육 문화, 글로벌시민교육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지도 자료의 부족 등 구조적 문제와 교수법 같은 과제는 실천적 과제와 함께 여전히 남아 있다.<sup>28</sup>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글로벌시민교육 역량이 다른 교과가 요구하는 역량과 결합되었을 때 특히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시민의식 함양과

27 J. Delors 등, 『학습: 내 안의 보물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Paris, UNESCO, 1996.

### 글로벌시민교육의 비전 : 매니토바주 12학년 사회과 수업



자료: 매니토바 교육과 심화학습, 12학년, 글로벌 이슈: 시민의식과 지속가능성

종합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참가자들이 보건·복지에 관한 보편적 권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록 이끌었다.

콜롬비아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교육정책이 목표로 하는 다섯 가지 기본 역량 가운데 하나이다. 2005년 콜롬비아는 ‘시민의식 함양과 성교육 프로그램(PESCC)’을 도입했다. PESCC는 유아에서 11학년까지 배우는 범교과 프로그램으로, 사회 정서적 기술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동의 학습 전략과 공동체 참여를 독려한다. 커리큘럼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 역량과 추가로 필요한 상황별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구통계보건조사(Nation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up>29</sup>’의 일환으로 1990~2010년 성교육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PESCC가 활발하게 실행된 지역의 여성이 성교육의 질에 대해 더 좋은 평가를 했고, 더 안전한 성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모든 응답자들이 성적 취향, 이틀테면 동성애와 HIV 감염자 같은 세계적 관련성을 지닌 주제 등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콜롬비아의 이 조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2015년부터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sup>30</sup>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힘을 변화의 동력으로 인지하고 세계적 문제들에 관해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교과과정을 통해 접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튀니지에서는 유네스코·교육부·국가교육과학문화위원회

28 J. Eom,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의 글로벌시민교육 실천 - 도전과 기회 Implementation of GCE in the formal education system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발표.

29 Vargas-Trujillo, D. Cortés, J. M. Gallego, D. Maldonado and M. C. Ibarra, '콜롬비아 젊은 여성들의 성 교육 : 인권에 초점을 맞춘 분석 Educación sexual de mujeres colombianas en la juventud : un análisis desde el enfoque basado en derechos humanos', 심화학습 시리즈 1990-2010, 2013. <http://www.profamilia.org.co/docs/ESTUDIOS%20A%20PROFUNDIDAD%20AF.pdf> 참조.

30 같은 자료.

및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하여 민주주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8~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침은 인권·다문화주의·평등·시민사회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20종의 교육계획표로 이루어졌다. 젊은이들이 주도한 튀니지의 정치적 자유화가 진행 중이던 2011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민주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의·평등·존엄·존중 같은 보편적 가치들의 개념을 전파한다. 취약한 지역에서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 청소년이 성숙한 시민, 튀니지 시민사회의 일원이자 글로벌 시민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타인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며,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국가 정체성 문제에 맞서며, 다른 젊은이들의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고, 세계적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 이것들 모두가 글로벌시민교육의 필수 요소이다.<sup>31</sup>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몇몇 나라들은 학습환경을 확장하고, 교실과 공동체를 연결하며, 분산되어 있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 플랫폼을 활용해 왔다.

온라인·원거리 학습 플랫폼은 교육자들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학습자들의 교육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자를 위한 IT세계 이용(TIGEd, Taking IT

31 S. Hamrouni,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 전체 회의 발언 및 개인적 대화.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UNESCO, '튀니지 청년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매뉴얼 Manuel d'apprentissage de la démocratie pour les jeunes en Tunisie', Rabat, UNESCO, 2011 참조.



Global for Educators)’은 교육자들이 기술을 사용해 혁신적인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 당시 TIGEd는 11,000 명이 넘는 교사와 4,0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TIGEd를 통해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서로 협력하는 가상 교실을 만들 수 있고, 그곳에서 학생들은 가상 현장학습을 체험하거나 온라인 환경에서 자매학교와 짝을 지어 활동할 수도 있다.

TakingITGlobal 프로젝트 수석 매니저인 라이언 맥클린(Ryan MacLean)은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세계적인 주제들과 세계를 지향하는 관점을 교육에 통합시키는 것은 종종 나중에 생각하게 된다”면서, TakingITGlobal은 “경쟁하면서 협력해야 하는 세계화 시대에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시민교육에서 교육자를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sup>32</sup>

- 교육자들이 창의적이고 변혁적인 교수법들을 경험하여 자신의 수업이나 학습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외딴 지역의 교육자들이 협동적인 온라인 학습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배울 수 있게 한다.
- 교수 계획안과 자료 및 평가를 온라인으로 공유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자료를 풍부하게 한다.

글로벌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핵심 교과과정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경

32 M. Bracken(2014) 참조.

우에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을 한다.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페르난도 라이머스(Fernando Reimers) 하버드대 교수는, 교육에서 전인적 정신이 고양됨에 따라 얻어지는 부가가치는 학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미래친화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예로 TIGEd 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있다. 학교 전체가 참여해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TIGEd가 만든 것이다. ‘미래친화적 학교’ 인증제는 학교들이 참여를 주도하도록 자극하고, 협력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며, 성공 사례를 인정하고 기념함으로써 다른 학교들을 고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33</sup> ‘미래친화적’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참여 학교들의 글로벌 공동체와 폭넓은 자료 그리고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실험실’이 된다. 이러한 학교들은 TIGEd 관련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내일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는 선도 학교로 널리 알려진다.<sup>34</sup>

온라인 학습 기회 또한 글로벌시민교육에 중요하다. 여기에는 원거리·개방 학습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문제들을 조사하고 공동의 과제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혁신적인 접근법들은 복합적인 학습 환경을 온·오프라인 활동과 연계하여 학습이 컴퓨터 스크린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 학습과 실험 학습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영마스터스 프로그램(YMP, Young Masters Programm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은 군중 학습 접근법(crowd-learning approach)을 사용하여 지역의 본보기, 도전과 성공담을 수집하여 홍보하는 웹 기반의 교육·학습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것은 학교·교사·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데,

33 R. MacLean, IT 세계 이용 *Taking IT Global*. 2013년 12월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 전체 회의 발표.  
34 ‘미래친화적 학교들 : 프로그램 개요와 참여 선택 *Future Friendly Schools: Program overview and participation options*’, Taking ITGlobal의 배포되지 않은 자료. [http://www.learnquebec.ca/en/tiged/Docs/ffoverview\\_participations.pdf](http://www.learnquebec.ca/en/tiged/Docs/ffoverview_participations.pdf) 참조.

지금까지 120개 나라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해결 방법의 모색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함양, 역량 강화, 지역 차원의 행동과 세계적인 문제들의 연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YMP 과정은 18주 동안 진행되는데,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실질적인 변화 주도 프로젝트를 수립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습은 오프라인 과제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그룹 활동(학생 3~5명과 코치 역할을 하는 교사 1명)에 참여하고, 가상의 글로벌 교실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그리고 동료 평가 시스템을 통해 다른 그룹 및 교사들과 개선안 등에 관한 의견이나 정보를 주고받는다.

모든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에게는 YMP 수료증과 함께, 장학금이나 상을 주고 후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또한 YMP 회합 및 파트너 프로젝트에 초대한다. YMP의 토발드 제이콥슨 소장은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교실에서 세계로 통하는 창을 열어 주고 싶다”면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교과서가 공통분모가 아닌 곳에서는 대화가 공통분모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성 주제와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영국문화원은 시리아 난민 아동 지원의 일환으로 영국 학교들과 요르단 및 레바논 학교들 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학교 대상의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커넥팅 클래스룸(Connecting Classrooms)’를 토대로 하고 있다. 영국의 중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요르단과 레바논의 20개 학교와 연결되어 있으며, 시리아 난민 아동이 처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낸다. 이 사업은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영국 학생들에게 시리아 사태의 영향을 보여준다.
- 스카이프(Skype)나 편지를 통해 시리아와 레바논, 영국 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다.
- 교사들이 아이디어와 수업계획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다.<sup>35</sup>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술의 활용 또한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60억 개가 넘는 휴대폰이 가입되어 있다. 파급력과 급속한 기능 확대를 고려하면, 모바일 기술은 학습을 개선하고 촉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 기회가 부족한 공동체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sup>36</sup>

## 스포츠나 예술에 기초한 접근법

## 2.3

글로벌시민교육을 하기 위해 교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스포츠는 정의·관용·다양성 및 인권에 관한 심도 있고 오래 지속되는 가르침을 줄 수 있다. 또한 협동·인내·페어플레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목표를 고취할 수 있다. 사회 통합과 상호 이해 및 존중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다양성과 갈등 해결을 촉진하는 데도 유용하다.

<sup>35</sup> 영국 정부의 ‘영국이 시리아 난민 아동의 교육을 지원한다 UK boosts education for Syrian refugee children’ 참조. <http://www.gov.uk/government/news/uk-boosts-education-for-syrian-refugee-children>.

<sup>36</sup> 교육의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유네스코 웹페이지 참조. <http://www.unesco.org/new/en/unesco/themes/icts/m4ed/mobile-learning-resources/unescomobilelearningseries>.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는 지역·국가 정체성, 정치·사회경제적 수준, 문화, 민족성을 초월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과 연대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2005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OVEP, Olympic Values Education Programme)’을 진행해 왔다. OVEP는 가치에 기초한 학습과 경기장 안팎과 교실 및 실생활 모두에서 차별교육을 철폐하는 데 스포츠를 활용한다. OVEP는 3개 대륙에 걸친 45개국의 300명이 넘는 협력자들에게 성별 균형, 건강한 생활양식, 사회적 포용성, 신체적·학문적 이해, 역량 개발 및 공동체 발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가치 기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유연한 방법론과, 다양한 문화적 접근법, 상호작용의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올림픽 경기와 전통 및 가치를 통해 삶의 가치를 가르치고 긍정적인 사회 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OVEP과 같은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활용한 교육 활동을 통해 글로벌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료 :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인자이루 쿨론두가 이끈 수업 참여 활동.  
©UNESCO/s, Chaiyasok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만 한다면 스포츠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단편적인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그 역량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럴 수 있다.”

– 페르난도 라이머스(Fernando Reimers) 하버드대학 교수

“스포츠는 강력한 도구이다. …… 그것은 교육 환경이며,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 나에게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지금도 내 발로 서 있게 만들었다. 내가 어떻게 상대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축하해야 하는지 가르쳤고, 나의 팀과 가족과 나라와 환경과 사회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 나린 하지타스(Narin HajTass), 요르단 국가올림픽위원회 교육훈련 매니저

## 공동체에 기초한 접근법

지역 공동체와 글로벌 공동체의 연결을 촉진하고, 학습자를 실생활 경험(공동체 기반 활동,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 외국어 학습 등)과 이어 주는 학습환경은 대안적 또는 보완적인 학습 경로가 될 수 있다. 미술과 음악은 학습자들을 자기표현과 타문화와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공동의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개인이 환경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돕는 ‘손자국(Handprint)’ 캠페인이 조직되었다. 여기서 손자국은 개인이 환경에 남기는 ‘발자국’과 대조를 이룬다. 인도의 환경교육센터(CEE, Centre for Environment Education)가 개발한 ‘손자국’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독려하고 측정하며 분석하는 수단이다.

이 캠페인은 준비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환경·사회·경제)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영향을 분석한다. 각 측면에 관해 일곱 가지 질문이 주어지는데, 자원 사용과 사회적 참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덧붙여 이 질문들은 개인·가정·기관·공동체·시·주·국가·세계와 같은 행동의 다양한 차원들을 반영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자국을 계산하며, 개인·공동체·시·주·국가·세계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들로 포인트를 쌓는다. 이러한 양적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인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혁신적 접근법은 청년들이 인간의 행동으로 야기되는 폐해에 대해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능동적 주체로 집결하도록 한다.<sup>37</sup>



자료: 자메이카 클래런던에서의 공동체 기반 ECCE 프로그램. ©UNESCO/Gary Masters

37 K. V. Sarabhai, '손자국, 미래를 위한 협력: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에서의 혁신적인 실천 *Hanprint, Joining Forces for the Future: Innovative practices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3년 12월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공유한 사례. <http://www.handprint.in/index.htm> 참조.

교육자들의 글로벌시민교육 역량 개발은 여러 가지 모습과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카리브해 지역에는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교사들을 위한 원격학습 과정이 있다. 2005년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교육부 장관들이 설립한 '미주지역 국가 간 민주주의 가치·실천 교육 프로그램(Inter-American Program on Education for Democratic Values and Practices)'과 2007년에 열린 카리브해 지역 영어권 국가들의 자문회의에 기초한 것이다.

이 학습과정은 2009~2010년에 안티구아바루다·벨리즈·그레나다·자메이카·세인트루시아·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의 250개가 넘는 학습의 담임교사들에게 제공되었다. 2011년에 이루어진 평가에 따라 커리큘럼이 수정되었고, 2013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미디어가 메시지이다"(마셜 맥루한의『미디어의 이해』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라는 개념과 참여 및 성찰을 밀바탕으로 하여 고안된 이 학습과정의 목적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발레리 테일러가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설명한 대로 "장려되고 있는 교수법과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본보기로 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다."<sup>38</sup>

국제교사교류 프로그램은 교육자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회는 물론, 새로운 교수법과 역량을 경험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교육부는 세계적인 문제 및 추세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대인

38 V. Taylor, '카리브해 지역의 민주 시민의식 교육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the Caribbean*',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 전체 회의 발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며 교수 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교사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이래 450명이 넘는 교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14년에는 참여 교사를 더 늘릴 예정이다. 사전 연수, 초청국가에서의 현지 오리엔테이션, 공동 수업 및 학교 활동, 귀국 후 교사·학교·정부가 참여하는 최종 보고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사들의 의견과 관련 국가들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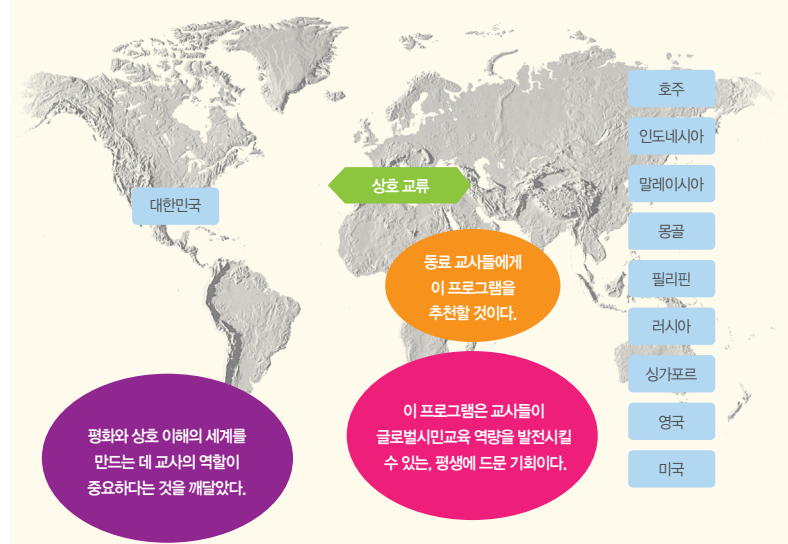
국제교사교류 프로그램과 학교 파트너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중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와 함께, 국가기관과 법률 제도, 시민의 권리 및 자유와 관련된 개혁을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교육은 이러한 개혁에 앞장섰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교사·교육자 교류 프로그램은 주로 미국 해외공보처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동유럽의 자원 교사와 학자, 관리들이 미국 전역의 대학 및 교육기관의 시민·시민의식 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초기 네트워크를 토대로 하여 1995년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제기구인 '키비타스 인터내셔널(Civitas International)'이 결성되었다. 이 기구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확대되었으며, 학습 및 교류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했다. 예산 지원이 줄어들고 여러 지역의 민주개혁 확산으로 인해 지금은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별다른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지만, 키비타스 인터내셔널은 많은 시민사회와 정부들이 글로벌시민교육의 정신에 동의하여 함께한 유례없는 훌륭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sup>39</sup>

##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 활동

### 대한민국의 국제교사교류 프로그램 개요



자료 : Y. Kang, '글로벌시민교육과 국제교사교류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nternational Teacher Exchange',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발표.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는 17개국을 대표하여 2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정치적 배경, 공동체를 대표했으며 학력도 다양했다. 아주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을 제공한 것 말고도 많은 청소년들이 글로벌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천하기 위해 이미 실행하고 있는 행동과 노력들을 대변했다. 포럼에서는 특히 소비자(학습자), 지지자, 교육자 및 리더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sup>39</sup> 국제교육연맹,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의 민주 시민의식 교육 : 키비타스 인터내셔널의 짧은 역사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fter the fall of Berlin Wall: a short history of Civitas International'에 관한 군타스 카르타스의 개인적 대화.

글로벌시민의식의 근본 가치를 발전시키고 의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서 이야기한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은 청소년지원단(YAG)과 고위급 운영위원회 청소년 대표(Youth Representative on the High-Level Steering Committee)를 설립했다. YAG는 전 세계 18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글로벌시민의식 함양을 비롯해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의 추진력을 높이고 더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자신들의 나라와 지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협의를 촉진한다.
- 청소년 교육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의견을 제시한다.
-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의 청소년지원단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우선시하는 것과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 청소년과 정부가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한다.

포럼에서는 글로벌시민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른 청소년 활동 사례들도 소개되었다. 포괄적인 성교육을 위한 인도의 YP재단(YP Foundation),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양식을 장려하기 위한 또래교육 단체들의 Y-PEER 네트워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액티베이트 등이 그것들이다.

세계 젊은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원봉사단(WHV, UNESCO World Heritage Volunteers)’ 활동을 통해 문화 간 대화는 물론, 세대 간 협력을 이끌고 있다. 2008년에 시작된 WHV 활동은 지속적으로 청년과 이들 단체들을 세계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다.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학습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결의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세계의 공동유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은 실제 기술 훈련과 워크숍을 통해 기본적인 예방은 물론 보호·보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한다. 이들은 지역 공동체와 함께 진행하는 현장사업에서 적극적

으로 활동하고 있다. WHV 활동을 통해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사람·문화·가치 및 생활방식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창조적인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를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키우게 된다. 연례 캠페인에서 지역 청소년 단체 또는 NGO들은 WHV 활동 캠프를 조직한다. 이 캠프는 보통 2~4주 동안 진행되며, 10~30명의 국내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2,000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29개국의 61개 세계유산 현장의 126개 캠프에 참가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통해 WHV는 풍부한 결실을 맺었다.<sup>40</sup>



자료 : 2010 세계유산 자원봉사단 캠페인. 인도네시아 프람바난 사원 세계복합유산 사이트에서.  
©UNESCO/Dejavato

<sup>40</sup> <http://whc.unesco.org/en/whvolunteers/> 참조.

이 장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과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폭넓은 교육적 환경과 경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로벌시민교육의 모니터링과 측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투입(교육자의 역량, 자원, 수단, 학습환경 등)과 과정(교수법, 행동 유형, 학습자의 참여 등), 산출(지식, 가치, 행동, 기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

글로벌시민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니터링과 측정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마스터카드 재단(MasterCard Foundation)<sup>41</sup>은 5억 달러의 예산으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 1만 5,000명에 이르는 중·고등교육 대상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10개년 계획을 후원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을 그들의 공동체에서 변화를 앞당기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20개의 NGO와 중·고등교육기관으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함께,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행되는데, 이들 NGO 및 교육기관이 교육 대상자들을 직접 선별하고 지원한다. 나아가 글로벌시민교육을 밀반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많은 가치와 역량을 강화한다.

마스터카드 재단은 학습자들이 봉사과 사회 변화에 대한 그들의 각오를 글로벌 의식이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며 실천하는가를

41 B. Burciul, '마스터카드 재단 장학 프로그램, 글로벌시민의식 평가 Mastercard Foundation Scholars Program, Evaluating Global Citizenship'. 201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발표. 주 : 중·고등교육 수준에 따라 특성의 복잡도가 증가.

학생이 지역 상황을 세계적 맥락에서 해석하는가	학생의 도덕적 체계가 글로벌 감수성을 포괄하는가	학생의 실제 경험이 글로벌 지향성을 포괄하는가
지역적 행동이 세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자기 집단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류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책임을 고려하고 자신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부여한다 성별, 문화, 출신, 성적 취향 등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친글로벌 시민'의 윤리적 방향성을 받아들이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한다
세계적 영향이 지역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세계적 또는 지역 밖의 주제와 관련 행동을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성공과 리더십을 표현한다 세계 지향의 시각으로 사회 정의 및 윤리 관련 이슈들을 열거하고 설명한다	교과·비교과 활동에서 스스로 내재적·외재적 세계화 측면에 집중한다
세계적 상황이 우리의 선택 범위와 지역 차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한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집단행동에 참여한다

자료 : '마스터카드 재단 장학 프로그램, 글로벌시민의식 평가 Mastercard Foundation Scholars Program, Evaluating Global Citizenship'.

측정한다. 위 표는 일부 지표들의 예이다.

다양한 평가 과정의 또 다른 예로는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과 멜버른 대학의 청소년연구센터(Youth Research Centre)가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학교의 학생들과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청소년들을 연결하여 각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이 더 광범위한 세계적인 문제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sup>42</sup> 2008~2011년에 실시된 연구<sup>43</sup>는 '가장 중요한 변화(Most Significant Change)' 기법<sup>44</sup>을 적용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의 성과를 수집했다. 다음 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호주와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sup>45</sup>

42 V. Kahla, '세계적 관계를 통한 청소년 연결 Linking Young People through Global Connections', Wierenga, A. and Guevara, J. R. 엮음, 『글로벌시민교육 : 파트너십을 통한 학습에 대한 청소년 주도의 접근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A youth-led approach to learning through partnership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13, pp.91~111.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약 900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과 연결되었다.

참가자가 보고한 '가장 중요한 변화'		%
호주 참가자	관심과 이해 (예: 글로벌 이슈, 인도네시아의 문제, 인도네시아 문화, 다른 나라 청소년의 생활방식, 세계적 맥락에서의 자신의 삶)	88
	관계	42
	개인적 변화	30
	행동	10
	변화 없음	4
인도네시아 참가자	영어 학습	47
	개인적 변화	25
	관계	21
	그 밖의 기술 개발	18
	관심	9
	그 밖의 행동	1

자료: Wierenga, A. and Beadle, S., 「세계 연결 프로젝트: 젊은이들의 참여 권리 조사 The Global Connections Project : Exploring participation rights with young people」, 2010. 멜버른 청년연구센터의 'Plan Australia'를 위해 준비한 출판되지 않은 보고서. Wierenga, A. '관계를 통한 배움 Learning through Connections', Wierenga, A. and Guevara, J. R. 엮음, 「글로벌시민교육: 파트너십을 통한 학습에 대한 청소년 주도의 접근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A youth-led approach to learning through partnership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2013, pp.155~175.

이 연구를 통해 평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술 발전과의 관계, 개인적 변화, 사회 변화를 위한 의식적 행동 같은 다양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 연구가 3년 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과 프로그램 결과 사이의 관계도 측정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팀은 장시간

43 450명의 청소년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250명은 인터뷰와 조사, MSC 과정을 통해 직접 참여했다. 이는 모든 Global Connections 참가자의 4분의 1이 넘는다. Wierenga, A. '관계를 통한 배움 Learning through Connections', Wierenga, A. and Guevara, J. R. 엮음, 앞의 책 pp.155~175 참조.

44 J. Dartand, R. Davies, '대화체의 이야기 중심 평가 도구: 가장 중요한 변화 기법 A Dialogical Story-based Evaluation Tool: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echnique',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2003, Vol. 23, No. 2, pp.137~155. MSC 과정은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하여금 참여 결과인 다양한 영역의 변화에 대해 거리낌없이 말하게 한다.

45 수치들은 정확한 통계라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것. "무엇이 가장 중요한 변화인가?" 물었지만, 많은 참가자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말했다. 그래서 수치를 합하면 100%가 되지 않는다. Wierenga, A.의 앞의 책, p.163 참조.

참여한(예를 들어 여러 번 반복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참가자들이 더 나은 학습 결과를 보이며, 또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지속가능성과 연결시켜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오랫동안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행동과 성찰 및 그룹 기반의 학습을 병행한 참가자가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복잡한 문제들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있었다.<sup>46</sup> 이는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활동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러 상황에서 일부 측정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이며, 실제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새로운 측정법이나 합성 측정법의 개발은 지역 및 세계 차원의 실천을 추적하여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보편교육센터(CUE,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를 지원하는 YAG, 그리고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습지표연구위원회(LMTF, Learning Metrics Task Force)는 워킹그룹을 조직해 글로벌시민의식 측정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글로벌 시민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의와 구성 요소를 조사하고, 현재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모든 국가와 관련 있는 글로벌시민의식 핵심 역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 분야의 새롭고 혁신적인 학습평가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2014년 3월에 출범한 워킹그룹은 2015년 초에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글로벌시민의식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을 복돋울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교육자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유네스코의 수단과 절차를 강화하게 할 것이다.<sup>47</sup>

46 앞의 책, p. 172.

47 K. A. Simons, '보편적인 학습을 향하여: 글로벌시민의식에 관한 학습 측정 프로젝트팀의 권고사항 Toward Universal Learning: The Learning Metrics Task Force recommendations on global citizenship.' 2013년 12월 3일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발표: LMTF(Learning Metrics Task Force), 2013, Toward Universal Learning: Recommendations from the Learning Metrics Task Force, Montreal and Washington, D. C.,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Centre for Universal Education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글로벌시민교육 측정에 관한 접근법 중에는 글로벌시민교육의 구성 요소와 해당 역량에 관한 주요 질문을 포함시킨 합성 지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일관된 측정법을 개발하자는 제안도 있다.<sup>48</sup> 그리고 나서 기존의 설문들과 다양한 자료에 있는 질문들과 변수들을 파악한 뒤, 글로벌시민교육과 연관된 요소를 식별해 내자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요소와 질문들의 예이다.

#### 글로벌시민교육 관련 변수 및 질문의 예

##### 지식과 기술

- 글로벌 도전 과제와 문제에 대한 지식(예: 글로벌 환경 문제가 당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키는가?)
- 외국어 지식
- 인터넷 및 현대 통신기술 사용(예: 개인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 태도와 가치관

- 글로벌 정체성과 개방성(예: "인터넷은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 타인을 돕고자 하는 의지
- 보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수용성
- 지속가능발전
- 반운명론적 태도(예: "사람이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말에 얼마나 동의하는가?)

##### 행동

- 시민 활동 참여(예: NGO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 친환경적 행동(예: 얼마나 자주 재활용을 위해 유리·금속·플라스틱이나 신문을 분리 배출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자료: V. Skirbekk, M. Potancokova, M. Stonawski, 2013, '글로벌시민교육 측정 *Measuremen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마지막으로 학습의 질과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글로벌시민교육이 기여했지만, 그것의 측정과 관련해서는 논쟁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글로벌시민교육과 연관된 다중의 목적과 실천법들이 평가를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일관된 측정법'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9</sup>

48 V. Skirbekk, M. Potancokova, M. Stonawski, '글로벌시민교육 측정 *Measuremen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3.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시민교육 전문가회의'를 위해 UNESCO가 의뢰한 연구.

49 G. Pike, 「글로벌시민교육 정신을 향하여 : 몇몇 문제와 가능성 Towards an etho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ome problems and possibilities」, *The Development Education Journal*, Vol. 7, No. 3, 2001, pp.30~32.



### 3. 앞으로의 과제

이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개념과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발전의 대부분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을 넘어선 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의 출범 및 유엔 사무총장의 결의와 함께,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시키는 힘을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분명해졌다. 이는 지난 9월 유엔 사무총장이 “아이들에게 읽고 쓰고 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육은 타인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존중심을 기르고, 사람들이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야 한다”<sup>50</sup>고 천명함에 따라 더욱 강조되었다.

2013년 유네스코가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주도한 일련의 과정들이 글로벌시민교육의 실천을 돕기 위해 기초를 튼튼히 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연합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여전히 눈에 띄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 여기서는 정책입안자와 교육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청소년 그리고 유엔 시스템과 그 밖의 개발 관련 기구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글로벌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평화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글로벌시민교육의 실천 사례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민관협력, 혁신적 교류 프로그램 등 글로벌시민교육의 ‘새로운 지평’으로 떠오른 수단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록 과정에는 접근성·자원·질·수용능력·결과·영향 같은 교수법의 성과를 고려한 평가가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한다.

둘째, 교육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질 높은 전문성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변혁

<sup>50</sup> 유엔 사무총장의 메시지, 2013년 6월 13일 '2013 세계 평화의 날'을 100일 앞두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http://www.un.org/en/events/peaceday/2013/sgmessage\\_countdown.shtml](http://www.un.org/en/events/peaceday/2013/sgmessage_countdown.shtml).

적 교수법은 다양한 상황에서 교사들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학습 모델이 요구 될 것이다. 이러한 역량 개발과 강력한 지원 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교사 간 및 공동체 전체의 협력과 교류 강화가 범교과적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연쇄' 효과를 보여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은 글로벌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진전시키는 그들의 헌신과 역량을 입증해 왔다. 글로벌시민교육의 설계·적용·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젊은이들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북돋울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넷째, 이러한 과정들은 지역과 대륙에 걸친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실천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는 존재를 탄생시켰다. 방콕 및 서울 회의 참가자들과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경험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사이버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든 단계—세계, 지역, 국가 및 공동체 차원—에서 글로벌시민교육 의제를 발전시키는 데 전문지식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글로벌시민교육을 측정하는 지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LMTF와 그 밖의 파트너들을 통해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접근법으로는 복잡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 역학과 글로벌시민교육을 진흥하는 교육 시스템 및 학습자를 포괄하는 합성 지표의 개발이 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종단분석(longitudinal analysis)과 연령과 집단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동세대분석(cohort-analysis)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민의 양성은 단순한 교육을 뛰어넘는 일이다.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그리고 차원을 아우르는 참여가 필요하다. 유네스코 글로벌시민교육 포럼에서 치엔탕 유네스코 교육 사무총장보는 이렇게 말했다.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만

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직업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ActionAid. 2003. *Get Global! A Skills-based Approach to Active Global Citizenship, Key Stages Three and Four*. London, ActionAid.
- Anderson Simons, K. 2013. *Toward Universal Learning: The Learning Metrics Task Force Recommendations on Global Citizenship*.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Appiah, K.A. 2008.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Coulter, D., Fenstermacher, G. and Wiens J.R. (eds). *Why Do We Educate? Renewing the Conversation (The 107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Vol. 1.
- Arakawa, N. 2013. *Conflict-sensitive Education*.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Bellamy, R. 2000. Citizenship beyond the Nation State: The case of Europe. O'Sullivan, N. (ed.), *Political Theory in Transition*. London, Routledge, pp. 91-112.
- Bodo, S. 2013. *GCE in Peace Building and Conflict-sensitive Education*.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Bracken, M. 2014. *Paper 1—Plenary Debates*. Submission to UNESCO for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Burciul, B. 2013. *Evaluating Global Citizenship*.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 Butera, J.B. 2013. *Trend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Africa*. Presentation at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eoul, Republic of Korea.
- Cabezudo, A. 2013. *Integration of Global Dimension into Citizenship Education*.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Chang, G.C. 2013. *Learning to Live Together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Connor, L. 2013. *Inquiry into Social Studies—Supporting self-efficacy leading to planned sustainable action*.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Dart, J. and Davies, R. 2003. A Dialogical Story-based Evaluation Tool: The most significant change technique.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Vol. 23, No. 2, pp. 137-155.
- Davies, L. 2006. Global Citizenship: Abstraction or framework for action? *Educational Review*. Vol. 58, No. 1, pp. 5-25.
- Davies, L. and Graham, P. 2009.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Lewin, R. (ed.). *The Handbook of Practice and Research in Study Abroad: Higher education and the quest for global citizenship*. New York, Routledge, pp. 61-79.
- Davies, I., Evans M. and Reid, A. 2005. Globalising Citizenship Education? A Critique of 'Global Education' and 'Citizenship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53, No. 1, pp. 66-89.
- Delors, J, et al.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UNESCO.
-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DEA). 2001. *Citizenship Education: The global dimension*. London, DEA.
- Education Review Office (ERO). 2013. *Where Are We Now? Results of Student Achievement in Mathematics, Nepali and Social Studies in the Year 2011*. Kathmandu, National Assessment of Student Achievement (NASA), ERO.
- Eom, J. 2013. *Implementation of GCE in the Formal Education System—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Evans, M., Broad, K., Rodrigue, A. et al. 2010.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An ETFO curriculum development inquiry initiative*. Toronto, Ontari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University of Toronto and the Elementary Teachers' Federation of Ontario.
- Faour, M. and Muasher, M. 2011. Education for Citizenship in the Arab World. *The Carnegie Papers*. Washington,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Global Education Week Network in coordination with the Council of Education. 2012. *Global Education Guidelines: Concepts and*



- methodologies on global education for educators and policymakers.* Lisbon,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 Guntars, C. 2013. *Implementation of GCE in the Formal Education System—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Guntars, C. 2014.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after the fall of Berlin Wall: A short history of Civitas International. Unpublished article.
- Hamrouni, S. 2013. Plenary remarks and personal communication during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Henderson, H. and Ikea, D. 2004. *Planetary Citizenship: Your values, beliefs and actions can shape a sustainable world.* Santa Monica CA, Middleway Press.
- Ibarra, C. 2013. *Integrating CSE and Citizenship Education Curriculum: Lessons learned from exploratory study in Colombia.*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INEE. *INEE Guiding Principles on Integrating Conflict Sensitivity in Education Policy and Programming in Conflict-Affected and Fragile Contexts.* <http://www.ineesite.org/en/education-fragility/conflict-sensitive-education>.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Amsterdam, IEA. [http://www.iea.nl/iccs\\_2009.html](http://www.iea.nl/iccs_2009.html).
- Inter-Agency Network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INEE). 2013. *INEE Guidance Note on Conflict-Sensitive Education.* New York, INEE, c/o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 Jacobsson, T. 2013. *Young Masters Programme on Sustainable Development.*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Kahla, V. Linking Young People through Global Connections. Wierenga, A. and Guevara, J.R. (eds). 2013.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A youth-led approach to learning through partnership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pp. 91-111.
- Keck, M.E. and Sikkink, K. 1998. *Activists beyond Border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Kerr, D. 1999.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Curriculum: An international review. *The School Field*, Vol. 10, No. 3/4. UK,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Kitchenham, A. 2010. The Evolution of John Mezirow's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Journal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Vol. 6, No. 2, pp. 104-123.
- Lappalainen, R. 2013. *Case Study of Citizens' Empowerment for Global Justice (DEEP).*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Learning Metrics Task Force (LMTF). 2013. *Toward Universal Learning: Recommendations from the learning metrics task force.* Montreal and Washington D.C.,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 MacLean, R. 2013. *Taking ITGlobal.* Plenary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Marshall, H. 2005. Developing the Global Gaze in Citizenship Education: Exploring the perspectives of global education NGO workers in Eng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Citizenship and Teacher Education*. Vol. 1, No. 2, pp. 76-91.
- Nigro, S. 2013. *Employment for Civic Education.*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O'Donoghue, R. 2013. *Transformative Pedagogy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Oxfam. 2006.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s.* Oxfam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me. London, Oxfam.
- Reimers, F. 2006. Citizenship, Identity and Education: Examining the public purposes of schools in an age of globalization. *Prospects*, Vol. 36, No. 3.
- Reimers, F. 2013. *Sports, Social Media and Glob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Sarabhai, K.V. 2013. *Handprint. Joining Forces for the Future: Innovative practices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se shared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Sinclair, M., Davies, L., Obura, A. and Tibbitts, F. 2008. *Learning to Live Together: Desig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education for life skills,*

- citizenship, peace and human rights*. Eschborn, Germany, GTZ.
- Skirbekk, V., Potancokova, M., Stonawski, M. 2013. *Measurement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tudy commissioned by UNESCO for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GCE in Seoul, Republic of Korea.
- TakingITGlobal. n.d. *Future Friendly Schools: Program overview and participation options*. [http://learnquebec.ca/en/tiged/Docs/ffoverview\\_participationoptions.pdf](http://learnquebec.ca/en/tiged/Docs/ffoverview_participationoptions.pdf).
- Tawil, S. 2013.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framework for discussion. *UNESCO Education Research and Foresight (ERF) Working Papers Series*. No. 7. Paris, UNESCO.
- Taylor, V. 2013.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in the Caribbean*. Plenary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Tibbits, F. and Torney-Purta J. 1999. *Citizenship Education in Latin America: Preparing for the future*.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HREA).
- Toh, S.W. 2013.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the Asia-Pacific Training Workshops (APTW) of APCEIU*. Presentation at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Torres, C.A. 2013. *The Quest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 letter to the children of the earth and all people of good will*. Keynote Address to the UNESCO Forum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ngkok, Thailand.
- Trujillo, E.V., Ibarra, M.C., Gallego, J.G. and Maldonado, D. 2012. Educación sexual de mujeres colombianas en la juventud: un análisis desde el enfoque basado en derechos humanos. *Serie de estudios a profundidad. ENDS. 1990-2010*.
- Trujillo, E.V., Ibarra, M.C., Gallego, J. M., Maldonado, D. and Cortés, D. 2013. Educación sexual de mujeres colombianas en la juventud: un análisis desde el enfoque basado en derechos humanos. *Serie de estudios a profundidad. ENDS. 1990-2010*.
- United Nations. 2012.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New York, UN.
- UNESCO. 1974.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aris, UNESCO.
- UNESCO. 1995. *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Paris, UNESCO.
- UNESCO. 2002. *Contributing to Peace and Human Development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rough Education, the Sciences, Culture and Communication*. Paris, UNESCO.
- UNESCO. 2011. *Manuel d'apprentissage de la démocratie pour les jeunes en Tunisie*. Rabat, UNESCO.
- UNESCO. 2013.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 emerging perspective*. Outcome document of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aris, UNESCO.
- Weale, A. 1991. Citizenship beyond Borders. Vogel, U. and Moran, M. (eds). *The Frontiers of Citizenship*. Basingstoke, Macmillan, pp. 155-165.
- Wierenga, A. 2013. Learning through Connections. Wierenga, A. and Guevara, J.R. (eds).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A youth-led approach to learning through partnership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pp.155-175.
- Wierenga, A. and Beadle, S. 2010. The Global Connections Project: Exploring participation rights with young people. Unpublished report prepared for Plan Australia, Youth Research Centre, Melbourne. Wierenga, A. Learning through Connections. Wierenga, A. and Guevara, J.R. (eds). 2013. *Educating for Global Citizenship: A youth-led approach to learning through partnership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pp. 155-175.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글로벌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http://www.unescoapceiu.org)

##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

2014년 12월 15일 1판 1쇄 발행

**원저자** 유네스코

**기획·번역** 김종훈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기획행정실장  
 정경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팀장  
 김지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팀 전문관  
 김지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협력팀 전문관

**제작대행** (주)한림출판사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4

ISBN 978-89-7094-803-4 03370

• 《글로벌시민교육: 21세기 새로운 인재 기르기》는 유네스코 본부가 2013년에 발간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를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기획·번역한 것입니다.

**펴낸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화** 02-774-3956

**전송** 02-774-3957

- 이 보고서는 Attribution-ShareAlike 3.0 IGO (CC-BY-SA 3.0 IGO) 라이선스(<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하에 Open Access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이 보고서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은 유네스코 Open Access Repository의 이용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 보고서에서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그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이 보고서에서 표현된 아이디어 및 견해는 저자의 것으로서 유네스코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도 대표하지도 않음을 밝힙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gce@unesco.org](mailto:gce@unesco.org))로 문의하거나,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unesco.org/new/en/global-citizenship-education>.